

# 통인화랑

## 1. 일반현황

조사일시	2019.10.10	조사자	이수진	유형구분	문화예술_전문가제안
대상명	통인화랑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32	

### □ 대상의 개요

보존대상의 특성	생활문화	물리적형태	점	보존대상의 가치범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단위 <input type="checkbox"/> 마을단위
----------	------	-------	---	------------	--

설계자	-		시공자	-	
건립시기	1974년	건립용도	점포	소유자	김완규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현재용도	점포	소유구분	사유
층수	지하2층/지상7층	건축면적	138.15㎡	연면적	758.48㎡
층별 면적	지하 2층 (41.82㎡)	지 하1층 (81.26㎡)	지상 1층 (74.15㎡)	지상 2층 (74.15㎡)	지상 3층 (96㎡)
	지상 4층 (96㎡)	지상 5층 (96㎡)	지상 6층 (96㎡)	지상 7층 (34.25㎡)	-
이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4년 통인동에서 통인가게로 개업</li> <li>- 1969년 관훈동(현 위치)으로 통인가게 이전</li> <li>- 1973년 관훈동 통인가게 사옥 신축(통일빌딩)</li> <li>- 1974년 통인퇴살람가구 설립</li> <li>- 1975년 통인화랑 설립 및 첫 전시</li> <li>- 2002년 통인뉴욕갤러리 설립</li> </ul>				

\*정보출처 : 통인화랑 공식 홈페이지(<http://www.tongin.com/>)를 바탕으로 제작성

### □ 입지 및 주변현황

주변시설	시설명	명신당필방	낙원떡집	새김소리		
	시설높이	3층	4층	5층		
교통편의 및 주차	접근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대중교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버스	- 정류소명: 종로2가역(01-013) - 버스번호: 160		도보시간	08분~10분	
	지하철	- 안국역(3호선), 종로3가역(5호선)		도보시간	12분~14분	
	기타	-				
	주차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민영) <input type="checkbox"/> 무	주차대수		-	
	주차비용	30분/2,000원		주차가능시간		00:00~24:00

## 2. 보존필요성

- 한국 미술계의 '역사' 를 고스란히 이어온 전통과 국내, 국제적 영향력으로 고미술품만 아니라 다양한 현대공예품매장과 공예전문화를 갖춘 문화명소라고 할 수 있음
- 공예방 운영·음악회 개최·운송 사업 등 화랑 역사 중 최초의 복합문화공간
- 박서보, 윤광조, 허건 등의 작가를 발굴하고 작품 전시
- <통인미술>이라는 제목으로 1권<장도>(1974), 2권<목칠공예>(1975), 3권<벽통>(1977) 등 수준 높은 책자 발간
- 1972년 통인익스프레스를 개설해 고미술품들의 운송을 전문적으로 시작함
- 건물 자체가 유물. 우리나라 최초의 엘리베이터에 해당하는 것이 아직도 작동함

## 3. 활용방향

- 통인화랑을 포함한 인사동의 과거와 현재 및 변천과정을 비교하고 경험할 수 있는 아카이브전 개최
- 과거 통인화랑의 모습 등을 담은 사진과 전시자료, 통인화랑 및 인사동 화랑가 일대에 얽힌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스토리북과 사진집을 제작하여 공유
- 통인화랑에서 발간한 책자 및 개최한 음악회 등의 활발한 활동 모습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 설치
- 화랑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임을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 제작

## 4. 현장조사

### □ 보존현황

보존(보수정비)현황	- 최근 이루어진 최신 증축이 2014년으로 관리상태 양호함			
보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형보존	<input type="checkbox"/> 부분보존	<input type="checkbox"/> 이축보존	<input type="checkbox"/> 이미지보존
	<input type="checkbox"/> 복원	<input type="checkbox"/> 표석설치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보존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상중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중하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 활용현황

활용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용도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용도전용후 수익사업 <input type="checkbox"/> 전시/관람 <input type="checkbox"/> 체험/행사			
	<input type="checkbox"/> 광장/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활용방법	- 화랑으로 운영 중			
이용현황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료	평균이용인원
	수요일~일요일 (화요일 휴관)	10:30-18:30	-	약 60명/일
이용유형	<input type="checkbox"/> 비개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방이용	<input type="checkbox"/> 제한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안내현황	<input type="checkbox"/> 안내판	<input type="checkbox"/> 유도사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설·안내자	<input type="checkbox"/> 음성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영상안내장치	<input type="checkbox"/> 입체소형모형	<input type="checkbox"/> 재현모형	<input type="checkbox"/> 기록영화
	<input type="checkbox"/> 슬라이드	<input type="checkbox"/> 전단	<input type="checkbox"/> 도록/ 참고서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시설현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리시설	<input type="checkbox"/> 휴게소	<input type="checkbox"/> 매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 관리현황

- 자체적으로 관리·보수

## 5. 관련지도 및 사진자료

### □ 관련지도

	<p style="text-align: center;">토지이용계획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li> <li>- 일반상업지역</li> <li>-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인사동 지구단위계획)</li> <li>- 도로(접합)</li> <li>- 가축사육제한구역&lt;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gt;</li> <li>- 상대보호구역(교동초등학교)&lt;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gt;</li> <li>- 상대보호구역(서울경운학교)&lt;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gt;</li> <li>-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lt;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gt;</li> <li>- 문화지구&lt;문화예술진흥법&gt;</li> <li>- 역사도심((4대문 안)&lt;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gt;</li> <li>- 과밀억제권역&lt;수도권정비계획법&gt;</li> <li>-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역사도심)</li> </ul>

### □ 관련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통인화랑 입구 전경 (직접 방문 촬영)</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인화랑 공식 마크 (직접 방문 촬영)</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인화랑 입구 간판 (직접 방문 촬영)</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인화랑 내부 (직접 방문 촬영)</p>

## 6. 기사사항

### □ 통인화랑

통인가게는 1924년 인제 김정환에 의해 설립되어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알리고 보급한다는 설립 이념으로 2대를 걸쳐 운영되고 있다. 통인은 우리가 생각하고 실행하는 일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근본이 되고 바른 문화에 바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전통 문화와 미술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고미술과 현대 미술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서 우리의 문화를 바르게 전달하고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한국관광공사) 공식 홈페이지 내용(<https://terms.naver.com/>)

### □ 관련기사 - “신건축 기행 (3) 인사동 통인가게”

#### (전략)

이러한 인사동의 정취와 모습을 한 자리에서 맛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종로에서 인사동 방향으로 꺾어져 중규모 건물들이 붙어선 한 블록을 지나면 인사동 길로 접어든다. 길 오른쪽 1,2층짜리 구옥들 사이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난 채 서있는 「통인가게」가 바로 그 곳이다.

이곳은 다기 그릇 장식품 같은 생활 공예품, 고가구 판매점과 함께 지하 1층은 화랑, 5층은 고가구 전시장으로 꾸며졌다. 지난 73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2층으로 된 주변 건물 사운테서 보기 드물게 6층이나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1,2층의 외벽이 유리로 마감된 반면에 3층 이상의 상층부는 창이 거의 없는 벽으로 처리되어 시각적인 상충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창을 거의 내지 않은 것은 햇볕을 막기 위한 의도로 판매하는 고가구들이 햇볕을 많이 받으면 뒤틀려 변형되기 때문이라고 집주인은 설명한다.

건물의 전면에서 볼 수 있는 6층의 가로로 길게 난 창은 아래쪽 양끝이 둥글게 말려 올라간,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장경호라는 옛날 가야신라시대의 목이 긴 토기의 형태에서 따온 것이다. 건물의 외벽 마감재로 주로 쓰인 검은 벽돌의 어두운 색감과 투박한 질감은 인사동의 분위기와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다. 현대식 건물임에도 전체적으로 묵직한 면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데 인사동의 복고풍적 모습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이다.

건물의 앞마당에는 감나무와 우물향아리 등이 있어서 향수 어린 옛 정취를 담고 있다. 원래 이 건물은 2층이었으나 73년 지금의 6층 건물로 개조한 것이다. 당시로서는 드물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정도로 건물에 공을 들여 지었다는 것이 주인의 설명이다.

당시 주변에 그만큼 높은 건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6층이나 옥상에 오르면 인왕산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사진을 찍는 명소가 꼽혔다고 한다. 집 주인의 설명에 따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는 바람에 사진촬영 금지라는 안내판까지 달았는데 최근까지도 남아 있었다고 한다.

집 주인은 이 건물을 6층으로 개·보수하면서 단순히 상업 건물이 아닌 인사동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출처 : 매일경제 1997년 02월 19일자 기사 내용([www.mk.co.kr](http://www.mk.co.kr))

□ 관련기사 - “우리 공예품으로 달러 번다”

**우리공예품으로 달러 번다**

**통인가게 외국인관광객 상대 호황 누려**

화랑가가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공예품을 판매하는 일부 전문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

서울 인사동의 대표적인 공예품 전문점인 통인가게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외국인관광객 발길이 이어져 ‘달러벌이’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이곳은 IMF 사태 이전에도 일본, 미국, 유럽 등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공예품 전문점으로 인식돼 있었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달러화 강세에 힘입어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특히 일본 명절이나 휴가철에는 단체관광객들이 몰려 통제가 어려울 정도, 현재 통인가게를 찾는 고객은 평일 500~600명 선에서 주말에는 2,000~3,000명 선. 종일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일본 관광객들은 주로 한지공예품과 청자류를 찾고 미국, 유럽인들은 인형 껍반침 등 저렴하고 실용적인 공예품을 찾는다고.

통인가게는 1924년 고 김정환 씨가 창업해 2대째 가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창업주 아들인 김완규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61년 종로구 통인동에서 현재 위치인 관훈동으로 이전했다. 73년 5층 건물로 신축, 오늘에 이르고 있다.

1,2층에는 공예작가들이 만든 작품이 현대 생활양식에 맞게 전시되고 있다. 3층에는 조선시대 전통가구를 현대 생활에 맞게 개량한 퇴살림 가구를 소개한다.

4,5층은 민속박물관을 연상케 한다. 우리 조상 일이 담긴 공예품과 생활소품, 도자기, 목가구 등이 전시 판매되고 있는 것. 또 지하에 마련된 전시장은 공예전문화랑. 95년부터 금속 도자, 염색직조한지 닥종이 인형 등 다양한 공예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통인은 조직적이고 현대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관리하고 있다. 고객관리 조직이 별도로 있어 고객명단과 취향을 컴퓨터로 작성, 전시 팜플렛 발송과 각종 행사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또 통인 엠베서더 카드를 발급해 통인 익스프레스 등 계열사를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준다. 연 2회 연주회 초대 등 혜택도 주고 있다.

또 300~400군데 공예작가공방 등과 거래, 작가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자기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 1998년 03월 02일 기사 내용(www.mk.co.kr)

□ 관련기사 - 김형국의 미학 산책 <8> 인사동의 '거리방식 깨침'

(전략)

목은 가구 판매에서 출발한 통인가게

1924년 서울 서촌 통인동에서 출범한 통인가게가 지금의 인사동 거리로 옮겨온 것이 1960년이였다. 줌도둑이 많았던 그 시절은 식구 가운데 누군가가 숙직을 해야 했다. 중학교 3학년이던 안동김씨 집안의 막내아들이 그 노릇을 맡았다.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엔 숙직 방에서 늦잠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 이른 아침에도 가게를 찾는 마니아들이 있었다. 예용해(芮庸海, 1929~1995)도 그런 부류였다. 문화부 기자로 이력을 쌓은 뒤 단절·멸실 위기를 공론화해서 통상 인간문화재라 말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게 만든 덕분에 공예, 가무 등 전통문화의 전승 가능성을 열어 준 공로자였다.

그때 가게 방바닥에 주인 아들이 뒹굴고 있음을 엿보면 어김없이 타이름인지 꾸중인지를 했다. 영어를 착실히 배우라는 것. “가게 출입 외국 손님들이 늘어나는데 그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새나 개 모양 조형물을 앞에 두고 짹짹 또는 멍멍이라고 할 것인가. 시대가,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영어를 열심히 익혀라!” 했다. 소년은 어른 말을 명심했다.

(중략)

가게 역사가 백년을 눈앞에

이 땅에 골동가게를 처음 연 것은 1906년 서울에 왔던 일본인이었다. 그럴지언정 자생(自生) 통인가게가 불과 몇 년 뒤면 백년 연륜을 쌓게 되었으니 골동상 역사로는 괄목상대할 만해졌다. 그때 누각골이라 했던 인왕산 자락 마을에서 시작했던 가게였다. 집안은 당대 세도가문 안동김씨의 피붙이였지만 나라가 망한 뒤였으니 궁궐에서 나오던 하사품도 꿇긴 지 오래였다.

살아갈 방도가 막막했다. 양반 즐기라고 상공(商工)도 할 수 없었고 도회라서 농사지를 땅도 없었다. 겨우 집과 땅을 팔아 살아가던 어느 날 남자가 장을 보던 시속대로 시장에 갔던 아버지에게 구슬을 팔아 보라는 이가 있었다. 그때 ‘웨이야 구슬’ 이란 말대로 옛 구슬을 찾는 수요가 꽤 있었기 때문이었다.

옛 물건을 팔겠다고 가게를 열자 먼저 흘러든 것이 조선가구였다. 그러써 가게 이름이 통인가구점이 되었다. 가구가 나올 때는 각종 백자 그릇 등의 세간살이는 말할 것 없고 폐물도 따라 나왔다.

통인가구가 인사동으로 옮겨온 것은 6·25전쟁이 끝난 뒤 전후복구가 진행되던 시절이었다. 그 일대가 대학, 방충사, 명망 개인병원, 고전음악 감상실 등 복합문화지구라는 정체성을 다져 가던 추세에다 고서점 통문관, 일인들이 두고 떠났던 표구점 등의 존재가 이웃효과를 일으키면서 골동상을 끌어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판 2 참조>

(후략)



## 인사동 골동품·고미술화랑 통인가게 그리울땐 옛것 찾아 발길 닿는 곳

가슴 한쪽이 허허로운 날엔 「통인가게」에 들러보자. 서울 인사동에서 가장 오래된 골동품가게이자 고미술화랑. 카페·노래방·편의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인사동거리에 옛사람들의 체취와 손때를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아늑한 문화공간이다.

겉보기엔 그저 단순한 가게처럼 보이지만 통인에는 오랜 역사와 이야기가 깃들여 있다. 통인동에서 처음 문을 연 때가 1924년. 2대째 가업으로 대물림되며 63년 인사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창업자 김정환씨(작고)는 골동품에 상당한 안목을 지닌 수집광. 지금은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어깨너머로 일을 배운 막내아들 김관규씨가 운영하고 있다. 희소가치가 큰 고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만큼 통인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외국 수상,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고미술을 공부하는 가난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통인을 찾는 사람은 다양하다. 특별로 이병철 전 삼성회장

도 이집 단골. 지난해에는 가수 마이클 잭슨이 방문의사를 밝혔지만 가게가 아쉬리장이 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롯데높은 골동품가게」. 그러나 보통사람들을 위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고고하면서도 권위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던 앞마당을 생동감있는 장터로 바꿨다. 나무마차를 몇 대 마련해놓고 강정·약과 등 옛날과자와 민속주를 판다. 일요일엔 이 마당에서 뽕튀기기, 베틀짜기 등 옛풍습을 선보인다. 1·2층 매장엔 국내에서 개발된 대부분의 문화상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3층에 마련된 퇴살림가구 코너는 옛가구의 멋스러움을 그대로 재현해 비교적 싼값에 판매하고 있다. 5층은 매달 새로운 전시가 열리는 화랑. 일반화랑과 달리 전통공예를 우선한다. 봄·가을에는 대금소리 은은한 국악연주회가 열린다.

유리더 장계현씨는 「빛에 전만 해도 그림이나 고가구에 관심이 많은 옛가. 문인들이 자주 찾았지만 요즘은 복고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24일까지는 「옛여인의 향기」전이 열린다. 반지·노리개·비녀·필침 등 장신구를 비롯해 심패·거위·인두·반질고리처럼 여인들의 손때가 묻은 바느질도구, 함·결대·이층자개병 등이 선보인다. (02)733-4867

글 김관덕·사진 권혁제기자



가슴 한쪽이 허허로운날엔 「통인가게」에 들러보자. 서울 인사동에서 가장 오래된 골동품 가게이자 고미술화랑, 카페·노래방·편의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인사동거리에 옛 사람들의 체취와 손때를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아늑한 문화공간이다.

겉보기엔 그저 단순한 가게처럼 보이지만 통인에는 오랜 역사와 이야기가 깃들여 있다. 통인동에서 처음 문을 연 때가 1924년. 2대째 가업으로 대물림되며 63년 인사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창업자 김정환씨(작고)는 골동품에 상당한 안목을 지닌 수집광. 지금은 중학교때부터 아버지 어깨너머로 일을 배운 막내아들 김관규씨가 운영하고 있다.

희소가치가 큰 고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만큼 통인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외국 수상,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고미술을 공부하는 가난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통인을 찾는 사람은 다양하다. 특별로, 이병철 전 삼성회장도 이집 단골. 지난 해에는 가수 마이클 잭슨이 방문의사를 밝혔지만 가게가 아쉬리장이 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롯데높은 골동품가게」. 그러나 보통사람들을 위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고고하면서도 권위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던 앞마당을 생동감있는 장터로 바꿨다. 나무마차를 몇 대 마련해놓고 강정·약과 등 옛날과자와 민속주를 판다.

일요일엔 이 마당에서 뽕튀기기, 베틀짜기 등 옛풍습을 선보인다. 1,2층 매장엔 국내에서 개발된 대부분의 문화상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3층에 마련된 퇴살림 가구 코너는 옛가구의 멋스러움을 그대로 재현해 비교적 싼값에 판매하고 있다. 5층은 매달 새로운 전시가 열리는 화랑. 일반화랑과 달리 전통공예를 우선한다. 봄·가을에는 대금소리 은은한 국악연주회가 열린다.

(후략)